

중 양회 폐막... '시진핑-리창 체제' 출범

시진핑 3기 '당강정약' 강화

성장률 '5% 안팎' 목표 제시

국방예산 294조... 3년 연속 증액

올해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당·정·군에 걸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의 공식 개시와 '시진핑-리창(총리) 체제' 출범을 알리며 13일 폐막했다.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오전 9시(이하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 14기 1차회의 폐막식을 열고 9일간의 연례회의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시 주석의 국가주석 및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3연임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는 시 주석의 당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 원회 주석 3연임이 결정된 바 있다.

이로써 시 주석은 장쩌민(국가주석직 기준 1993~2003년)-후진타오(2003~2013년)전 주석의 집권 기간(10년)을 뛰어넘으며 2028년 3월

까지 중국 최고 지도자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또 내각인 국무원은 리창 총리와 덩쉐샹·허리핑·장궈칭·류궈중 부총리 등으로 수뇌부를 물갈이하며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안팎'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국제 사회 안팎에서는 이번 양회를 계기로 '당강정약(黨政協約)'이라는 시진핑 집권 3기의 운곽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산당(당)은 인사 및 감독권만 갖고 집행은 국무원(정)이 하던 당정분리에서 벗어나 당정일체를 추진하는 동시에 당의 장악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사와 조직 개편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리 총리는 시 주석이 2002~2007년 저성장 성장과 당 서기를 지낸 당시 비서실장 역할을 한 핵심 측근, 덩쉐샹은 명실상부 '시진핑의 비서실장'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허리핑은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경제팀의 실질적 리더 역할을 하는 경제 담당 부총리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경제 영역의 경우 '5.0% 안팎'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데다, 작년 3.0% 성장에 그친

데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안정 속 성장'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 공급망 배제 압박에 맞서기 위한 과학기술 자립·자강 강조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미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집4(한·미·일·대만)에 한국이 참여하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현재의 국제질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는 점도 눈에 띄어야 한다는 평가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올해 국방예산(1조5537억 위안·약 294조원)을 3년 연속 증액했다. 전년 대비 국방예산 증가는 2021년 6.8%, 2022년 7.1%에 이어 올해 7.2%로, 상승 폭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그쳤지만 작년 경제성장률이 3%에 그쳤고, 올해는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목표치(5% 안팎)를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소폭 증액'이라고 하긴 어렵다.

국방력 강화가 지향하는 바는 미국과의 전반적 군사력 격차를 좁히고, 대만해협 유사시에 대비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수년간 관광객 태운 코끼리에 생긴 변화

태국서 25년간 트레킹 동원

척추 내려앉은 코끼리 사진 공개

태국에서 오랜 기간 관광객을 태워 척추가 내려앉은 코끼리 사진이 공개돼 동물학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CNN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이것이 수년간의 관광객 타기 체험이 코끼리에게 한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태국에서 25년간 '코끼리 트레킹'으로 불리는 코끼리 타기 체험 관광에 동원됐던 71살 암컷 코끼리 파이린의 사진을 공개했다.

태국야생동물친구재단(WFFT)이 제공한 사진 속 파이린은 등 뒤쪽이 기형적으로 변형돼 내려앉은 모습이다.

20년 넘게 한 번에 최대 6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걸어야 했던 이 코끼리는 2006년부터 재단의 보호를 받고 있다. 너무 느리고 상태가 좋지 않아 관광객을 태우는 일을 더는 할 수 없게 된 파이린을 주인이 버리려 했다. /연합뉴스

WFFT는 "아직도 파이린의 등에는 오랫동안 압력을 받아 생긴 흉터가 있다"며 "지속적인 압력은 코끼리 등 조직과 뼈에 악영향을 미쳐 척추에 돌이킬 수 없는 물리적 손상을 입힌다"고 말했다.

코끼리 타기 체험은 동남아시아의 인기 관광 상품 중 하나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은 코끼리는 말처럼 타기 위해 사육되는 동물이 아니고 몸의 구조가 무거운 것을 싣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동물학대라고 비판해왔다.

태국 매체 네이션은 12일 "미국 CNN이 태국 코끼리 트레킹 관광의 어두운 면을 조망하는 기사를 보도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네이션은 "태국은 2014년 동물학대방지·동물 복지법을 제정했다"며 "그러나 아직 태국 동물 보호지수는 D등급"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동물보호단체(WAP)가 산정하는 글로벌 동물보호지수는 2006년부터 재단의 보호를 받고 있다. 너무 느리고 상태가 좋지 않아 관광객을 태우는 일을 더는 할 수 없게 된 파이린을 주인이 버리려 했다. /연합뉴스



멕시코-美 국제다리서 망명 요구하는 이주자들 12일(현지시간)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파소 델 노르테 국제다리의 멕시코 치와와주 시우디드 후아레스쪽에서 이주자들이 미국에 망명 수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 이주자는 대부분 베네수엘라 출신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망명 신청 제한 조치의 만기를 앞두고,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주자들의 망명 신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고객 예금 전액 보증

연준,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나서

미국 정부가 유동성 위기로 폐쇄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관련, 고객이 맡긴 돈을 전액 보증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재무부 등은 성명에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준과 FDIC의 권고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모든 예금주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의 사태 해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예금주는 13일부터 예금 전액에 접근할 수 있으며 SVB의 손실과 관련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성명을 밝혔다. 재무부 등은 성명에서 뉴욕주 금융당국이 이날 폐쇄한 시그니처은행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행동에 나선다"며 "SVB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충 대상 한도와 상관 없이 전액 보증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재무부 등은 성명에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준과 FDIC의 권고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모든 예금주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의 사태 해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예금주는 13일부터 예금 전액에 접근할 수 있으며 SVB의 손실과 관련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성명을 밝혔다.

재무부 등은 성명에서 뉴욕주 금융당국이 이날 폐쇄한 시그니처은행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우디·이란 관계 정상화... 중동 지형 급변

중국 주선 베이징 회담서 합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 합의로 중동의 외교·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과 시아파 맹주의 화해는 역대 오랜 갈등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교착에 빠진 이란과 서방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회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10일(현지시

간)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이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2개월 안에 상대국에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사우디가 이란의 반대에도 시아파 유력 성직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사건을 계기로 외교 관계가 단절된 지 7년 만이다.

양국은 또 상호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면서 2001년 체결된 안보협력협정과 그 밖의 무역, 경제, 투자에 관한 합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날 양국의 관계 정상화 합의는 시진핑 국

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린 중국 베이징에서 이뤄졌다.

알리 삼카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NSC)의 장은 중국에서 무사드 빈 무함마드 알아이반 사우디 국가안보보좌관과 4일에 걸친 회담 끝에 이날 국교 정상화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P는 "중동에서 미국이 서서히 발을 빼는 것으로 걸프 국가들이 인식하는 가운데 중국의 중요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각각 이슬람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주국으로 중동 지역의 주도권을 다투는 이란과 사우디는 2016년 단교 이후 예멘과 시리아 내전 등에서 서로 적대 진영을 지원하면서 갈등을 이어왔다. /연합뉴스

교황 즉위 10주년 "교황직 수행 쉽지 않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 10년을 돌아보며 "교황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황은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일 파토 쿼티디아노'와 한 즉위 1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교황이 되기 전에 교황의 일을 배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세상이 아닌 주님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3월 13일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됐을 때, 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가르침을 자주 떠올렸다고 소개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2005년 4월 24일 교황으로서 첫 미사 강론에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통치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며 "나의 진정한 통치 프로그램은 내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교회와 함께 주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고, 나 자신을 그분의 인도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사제의 성학대 범죄에 용기 있게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묻는 말에는 "평화"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관심이 세계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황은 "무관심이란 전쟁과 같은 비극에 눈을 감고 '내가 왜 신경 써야 하지? 난 관심 없어! 내 문제가 아니야'라고 회피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평화를 위해 무관심을 극복하자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